

2026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분석

2026.07.30

구조화 2실

김찬경 애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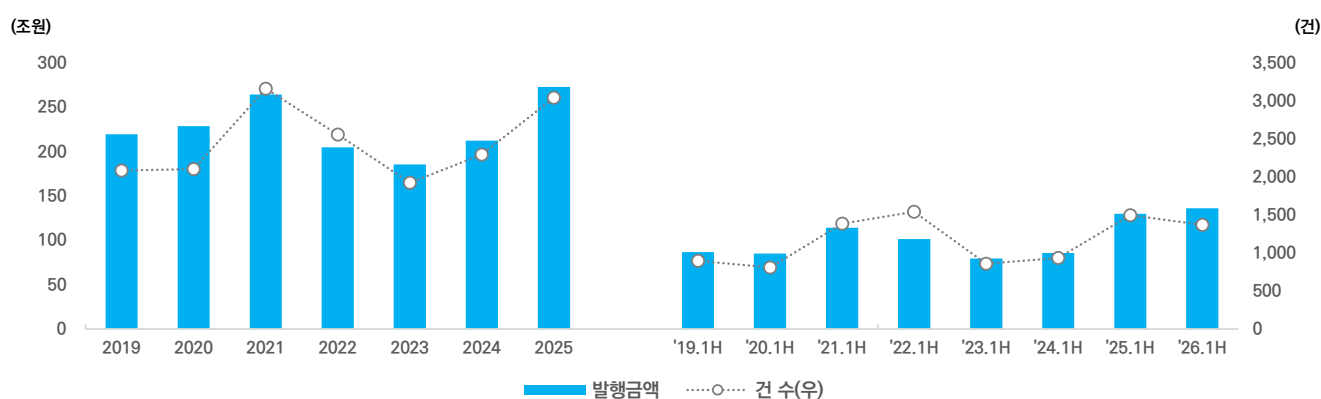
02-787-2253

chankyeong.kim@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 2026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건수(-8.4%)는 감소한 반면, 발행금액(+4.8%)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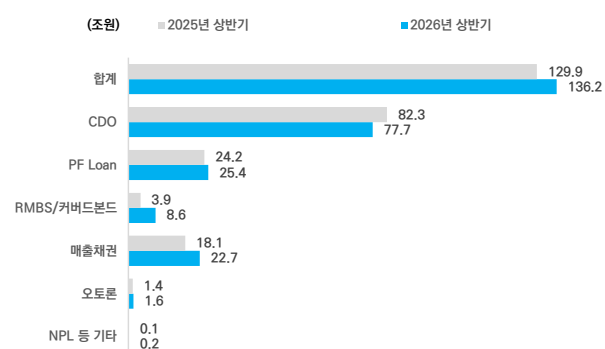


자료: 당사 집계(신용평가 4개사 공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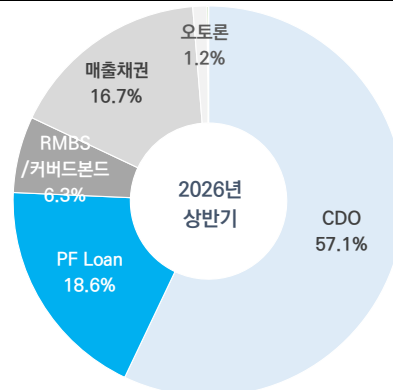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전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건수는 당사 집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반면, 발행금액은 4.8% 증가하여 136.2조원을 기록하였다. 유동화 시장의 양대 축인 CDO, PF Loan 부문 중 CDO 부문의 발행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 PF Loan 부문의 발행금액이 5.1% 증가하며 큰폭의 변동은 없었던 반면, 매출채권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며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소폭 확대되었다.

■ 2026년 상반기 주요 자산군별 발행규모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자산군별 발행금액



2026년 상반기 자산군별 발행금액 비중



● CDO: 77.7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

CDO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조원 감소하였다. 정기에금 유동화 발행실적이 1.2조원 늘어난 반면, 정기에금을 제외한 CDO 발행은 5.7조원 감소하였다.

● PF Loan: 25.4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PF Loan 유동화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 하반기 대비로는 7.6% 감소하였다. 신용보강 측면에서는 증권사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규모가 1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고 57.6%로 과반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시공사 신용보강 구조의 유동화증권은 4.0조원이 발행되며 전년 동기 대비 46.9% 감소하였다. 반면 정부의 공공보증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타 기관의 신용연계 구조는 6.8조원이 발행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8.9% 증가하였다.

● 매출채권: 22.7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

법인회원 대상 카드대금채권 유동화는 20.2조원이 발행되며, 소폭에 그친 유동화증권 발행액 증가에 주로 기여하였다. 이는 전체 매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8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 동기(15.2조원) 대비 32.7% 증가한 수치이다.

● RMBS/커버드본드 : 8.6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121.5% 증가

2026년 상반기에는 커버드본드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RMBS가 8.6조원 발행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1.5% 증가하였다. 보증 자리론 공급액이 증가하면서 해당 자원 조달을 위해 RMBS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 오토론: 1.6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오토론 유동화 부문에서는 자금조달 및 재무비율 개선을 위한 Book-off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였던 카드사들의 발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A급 신용등급 캐피탈사들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 2026년 하반기 자산군별 Outlook

국내외 통화정책이 2026년 하반기부터 긴축 기조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인 유동화증권 발행 여건 역시 비우호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여전히 상존하는 대외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산군별 발행규모는 정부의 정책 방향, 유동화 참여기관의 자금조달 수요 및 재무 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CDO	PF Loan	매출채권	RMBS/커버드본드	오토론
				
다소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중립적	중립적
정기에금: 금리 인상으로 대출수요 위축, 반도체 호황 꺾임 기업예금 유입으로 발행수요 감소 예상 기타 CDO: 대체 자금조달 수요 유효하나, BBB급 기업들의 Credit Event로 투자심리 위축 가능 P-CBO: 발행계획 감안 시 상반기 수준 유지 예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높은 공사비 부담 등에 기인한 신규 사업 부진, 정부 정책 기조로 발행 위축 예상	구매회계대금채권 유동화는 꾸준한 발행 증가 예상 단말기 유동화는 감소세 지속 전망	보증자리론 공급액 확대는 우호적 발행요인이거나,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 제한으로 하반기 발행 여건은 중립적. 커버드본드는 정책적 지원에도 은행채 대비 금리유인 감소로 발행수요 낮음.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전가 지연, 시장참여자들의 단기 조달 확대와 같은 부정적 요인과 여전히 스프레드 확대되는 긍정적 요인 혼재, 약보합세 전망

들어가며

당사는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매 반기 정기적으로 발간해왔다. 본 보고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2026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하에서는 2026년 상반기 ABS 시장이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본 보고서에 적용된 통계 집계 방식과 해석 시 유의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자료기간	유동화증권 발행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집계방법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4개사가 해당 기간에 신규로 등급을 공시한 유동화증권 ¹⁾
제외대상	① 동일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등급이 1년에 1번씩 신규로 부여되어 공시되는 경우 ② 동일 SPC가 기존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목적의 유동화증권 발행시에 신규로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 (증액 발행 시 증액된 부분만을 포함) ③ 신용파생상품 기초 유동화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④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후순위 유동화사채 ⑤ ABL ⑥ 신용등급 미공시로 발행하는 경우
유의사항	① ABCP Conduit의 경우 시리즈 ABCP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별개의 건수로 집계하고 있어 발행건수와 SPC의 수는 불일치 ② 동일 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SPC가 설립되어 유동화가 실시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유동화 건 및 발행회사로 분류 ③ 오류 수정 및 분류 변경 등으로 과거 당사가 발표하였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분석 관련 통계 수치와 일부 차이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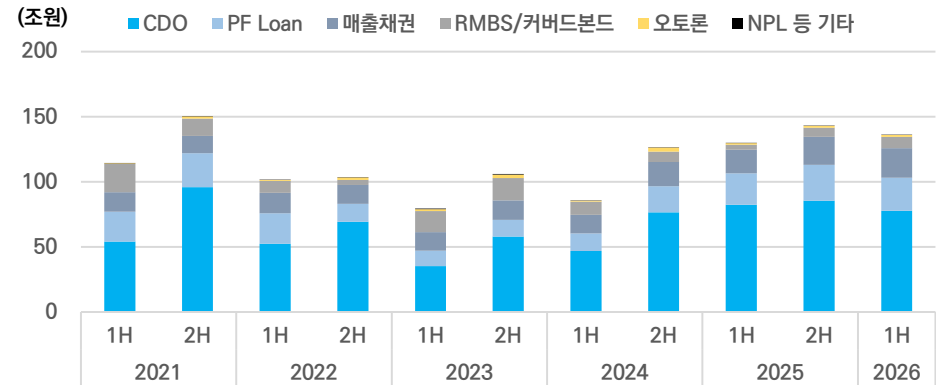
¹ 커버드본드는 형식 상 유동화증권은 아니지만 구조화금융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본 고의 통계 집계 시 포함하여 산출한다.

1. 전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전체 자산유동화 발행금액은
136.2조원

2026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의 총 발행금액은 136.2조원으로, 전년 동기(129.9조원) 대비 4.8% 증가하였다. 유동화시장의 양축인 CDO, PF Loan 부문은 보험세를 보인 가운데, 구매전용카드대금 채권 유동화를 포함한 매출채권 유동화의 증가가 소폭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발행실적 143.1조원에 비해서는 4.8% 감소하였다.

반기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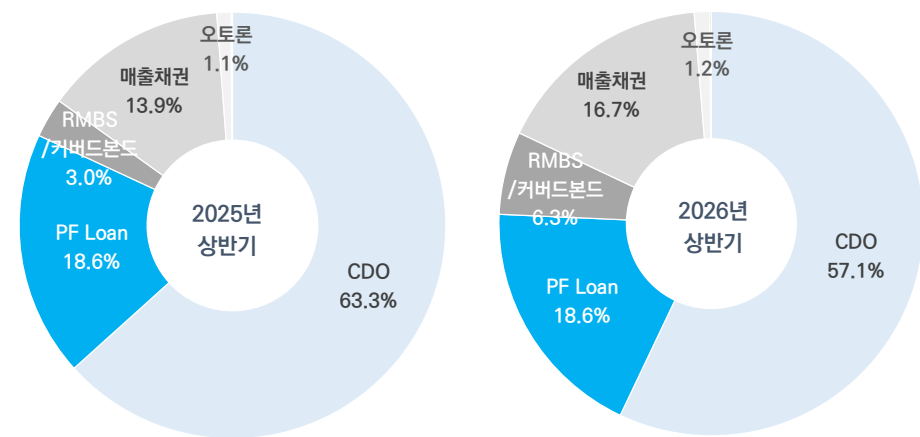


2. 기초자산별 발행실적

자산별 발행비중은
CDO, PF Loan, 매출채권,
RMBS/커버드본드,
오토론 순

CDO가 77.7조원 발행되며 전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57.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PF Loan 유동화는 25.4조원(18.6%), 매출채권 유동화는 22.7조원(1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RMBS/커버드본드 유동화는 전년 동기 대비 발행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이 6.3%로 확대되었다.

유동화자산별 발행비중(금액기준)



유동화자산별 발행실적

(단위: 억원, 건)

유동화자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발행금액	건수	발행금액	건수	발행금액	건수	발행금액	건수
CDO ¹⁾	352,249	299	469,186	358	822,774	646	777,294	590
PF Loan	119,160	287	134,318	251	241,777	405	253,995	384
RMBS/커버드본드 ²⁾	160,744	18	101,115	13	38,908	7	86,185	15
매출채권	143,486	245	144,173	305	180,675	432	227,214	372
오토론 ³⁾	14,080	8	6,780	6	13,930	4	16,054	6
NPL	395	2	600	2	1,346	3	1,565	4
신용카드	3,000	1	-	-	-	-	-	-
기타 ⁴⁾	1,600	1	2,265	2	-	-	-	-
합계	794,714	861	858,438	937	1,299,411	1,497	1,362,307	1,371

주1) 기초자산이 Bond, Loan, ABS, 수익증권 등인 경우 CDO로 분류

주2)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RMBS와 함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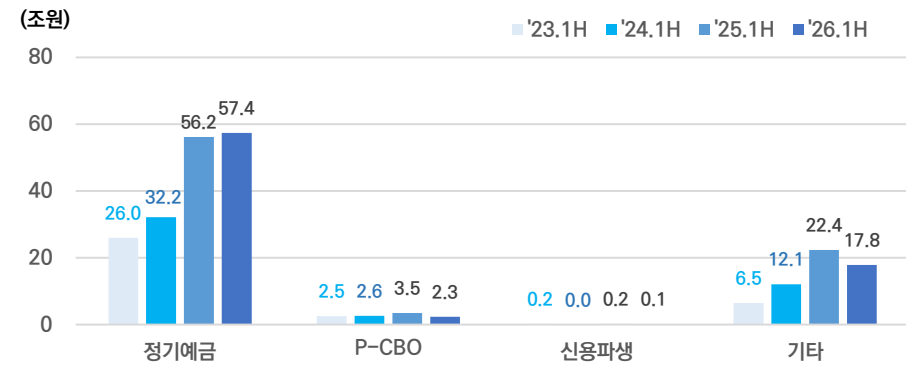
주3) 오토론, 오토리스/렌탈채권, 오토매출채권 포함

주4) 소액론, 리스채권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

① CDO: 77.7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

CDO는 기초자산에 따라 크게 정기에금, Primary CBO, 신용파생, 기타(대출채권, 수익증권, 사채/어음)로 구분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정기에금 유동화가 57.4조원, 기타 CDO가 17.8조원 발행되었다.

자산군별 CDO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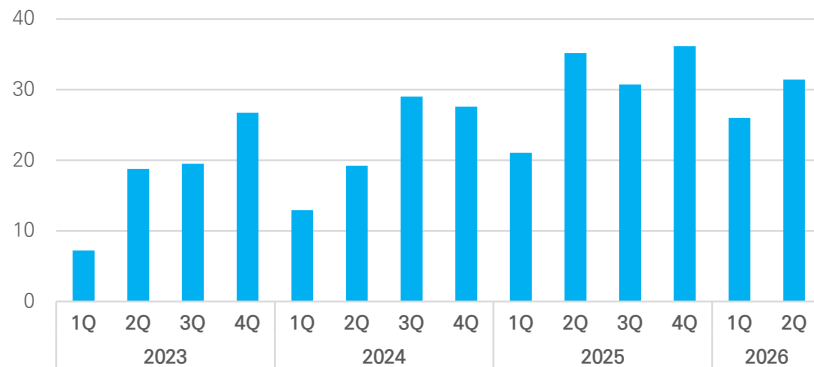


정기예금 유동화 발행실적 작년 하반기 대비 하락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액(57.4조원)은 작년 동기(56.2조원) 대비 2.1% 증가하였으나, 발행 규모가 정점(66.9조원)에 이르렀던 작년 하반기 대비로는 14.1% 감소한 모습이다.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대기업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동화를 통한 정기예금 유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외 예금 금리차와 Swap Spread를 활용하여 Cashflow Arbitrage를 실현하는 해외은행 정기예금 유동화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2025년 하반기(1.2조원)에 재개되어 2026년 상반기에도 0.5조원 규모로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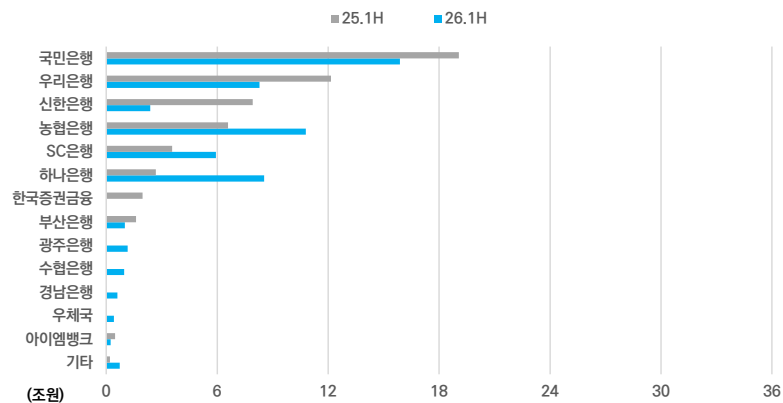
분기별 정기예금 유동화 발행실적

(조원)



은행별로는 (주)국민은행이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농협은행(주),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차례로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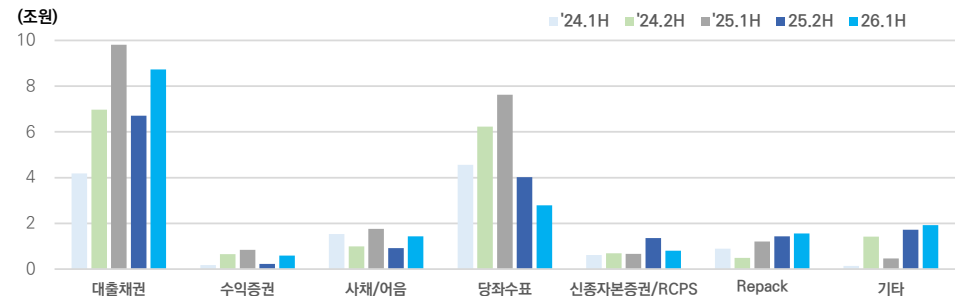
기관별 국내 정기예금 유동화 발행실적



기타 CDO 발행 감소
당좌수표 유동화 큰폭 감소

대출채권, 수익증권, 사채/어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타 CDO 부문의 2026년 상반기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조원 감소한 17.8조원이다. 당좌수표 유동화증권 발행액(2.8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4.8조원 감소(63.4%)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자산군별 기타 CDO 발행실적



당좌수표 유동화는 전년 동기(7.6조원)를 정점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왔으나, 2025년 하반기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여 당기에는 2.8조원이 발행되며 전년 동기 대비 63.4% 감소하였다.

대출채권 및 일반 사채·어음 유동화는 10.1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11.6조원) 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전년 하반기(7.6조원) 대비로는 33.4%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며 대체 자금조달 수요가 확대된 것에 더하여, PF 유동화 위축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관련된 투자자금이 부동산펀드·PFV·인프라투자펀드 관련 유동화로 일부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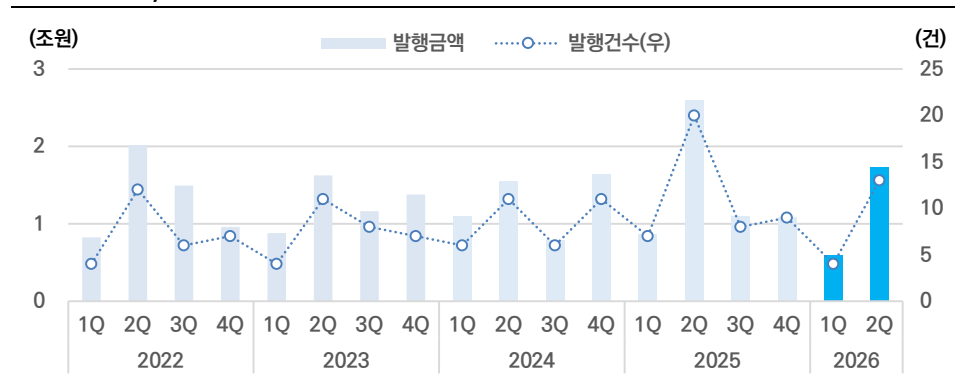
이 외에도 Repack 유동화증권이 1.6조원 발행되며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하였다. 이는 부동산 금융 관련 Repack을 비롯해 대출채권, 대출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의 Repack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이다. 수익증권 유동화는 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 해외대체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신종자본증권/RCPS 유동화는 일반기업의 부채비율 개선이나 금융회사의 규제비용 충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발행 실적에는 유의미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
P-CBO 발행실적
32.8% 감소

Primary CBO는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주관하에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성격을 가진다.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상반기에 2.3조원이 발행되며 전년 동기 3.5조원 대비 32.8% 감소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총 14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한 차례씩 발행을 주관하였으며, 이외 한국산업은행이 P-CBO 발행에 한 번 참여하였다.²

한편, 2025년 10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신용보증기금은 신탁방식을 통해 기금 내 자기 신탁계정을 설정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보증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당반기 6월 0.3조원이 발행되었다.

분기별 Primary CBO 발행실적



한편, 신용파생 유동화는 0.1조원 발행되었으나, 미공시 사모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비율이 높아 발행규모가 실제보다 과소 집계되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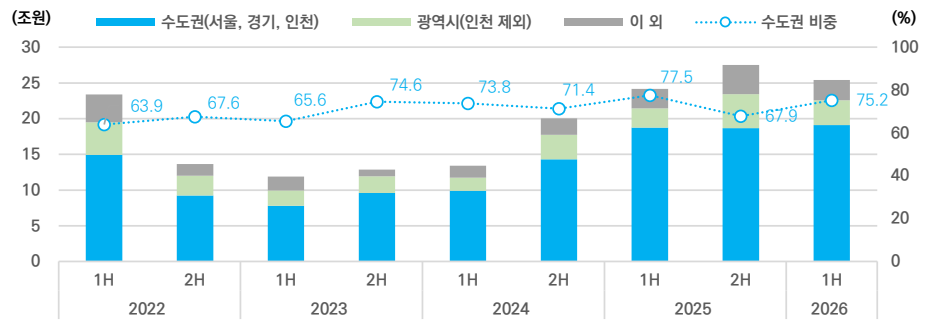
² 한국산업은행 주관으로 2026년 6월 7개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1,201억원 규모의 P-CBO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다.

PF Loan 유동화증권
발행규모 감소세 전환

② PF Loan 유동화: 25.4조원 발행, 전년 하반기 대비 7.6% 감소

2022년 상반기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등의 요인으로 위축되었던 건설경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과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로, 수도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지방 사업장까지 일부 확산되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PF Loan 유동화시장은 시장금리 상승과 공사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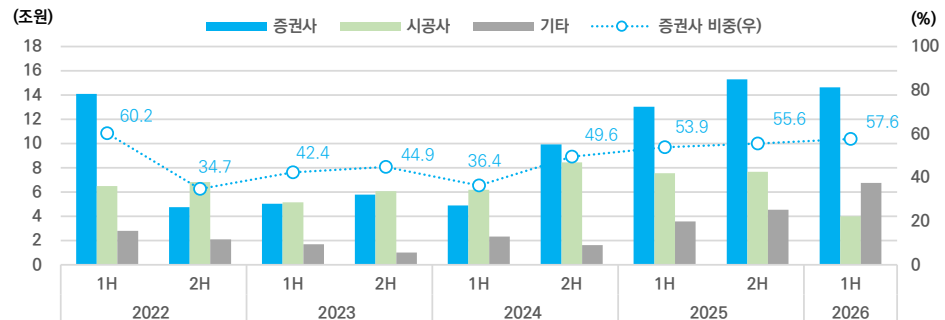
지역별 PF Loan 발행실적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가
과반 유지
공공기관 신용보강 구조
큰폭 상승

신용보강의 관점에서 PF Loan 유동화 구조는 증권사, 시공사, 기타 기관(은행, 지자체/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등 주요 참여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시장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14.6조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하반기 대비 4.3% 감소하였으나, 전체 발행실적 비중은 57.6%로 확대되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4.9조원으로, 정부의 공공 보증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공사 신용보강 구조의 비중보다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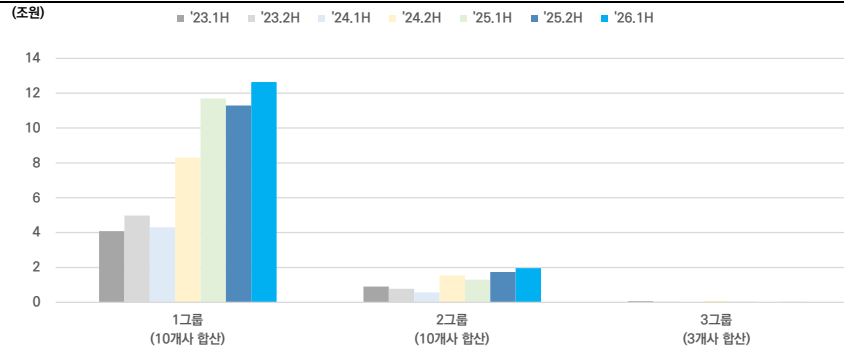
신용보강 주체별 PF Loan 발행실적



일부 대형 증권사 중심

2022년 하반기 이후 시장이 하향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강화하며 시장 참여를 축소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PF 구조조정 속에서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우량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본PF 취급이 다시 제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존 PF 익스포저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참여하고 있던 브릿지론이나 본 PF의 차환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 규모별 신용보강 PF Loan 유동화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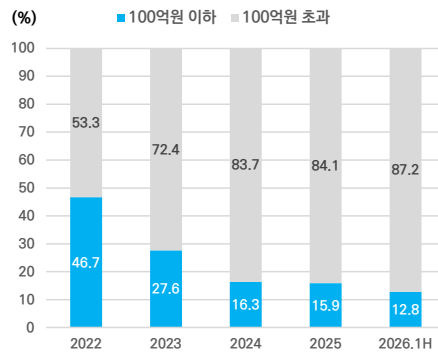


- 주1) 2026년 1분기말 현재 자본규모를 기준으로 증권사를 재분류. 1그룹 - 자본규모가 3조원 이상이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10개 증권사, 2그룹 - 자본규모가 3조원을 초과하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거나, 3조원 미만 1조원 이상인 10개 증권사, 3그룹 - 자본규모가 1조원 미만인 4개 증권사
- 주2)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 하의 PF Loan 유동화의 경우,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PF 익스포져 규제³ 하에서 1그룹이 우수한 자본여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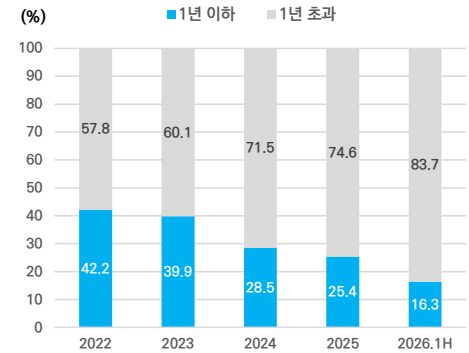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 100억원 / 1년 초과 사업장 위주

2022년까지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호조 속에 일부 증권사가 소액·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하면서, 건당 발행금액 100억 원 이하·조달기간 1년 이하의 토지개발 및 브릿지금융 PF 유동화가 46.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시장금리 상승과 공사비 부담 확대로 이러한 소액·단기 자금조달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본PF 및 본PF 만기 이후 미분양 물건 담보 차환 유동화가 늘며 건당 100억 원 초과·조달기간 1년 초과와 장기 자금조달이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 금액별 비중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 기간별 비중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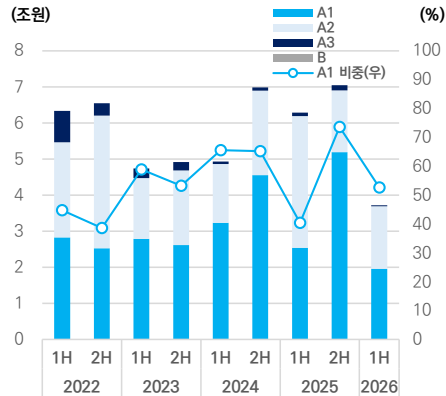
³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 3조원을 넘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물론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SPC는 상당수가 명목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추가 신용 공여 한도를 적용 받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및 SPC(특수목적법인) 관련 신용공여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⁴ 윤년 및 영업일 차이에 따른 유동화기간 등 고려하여 367일 초과를 1년 초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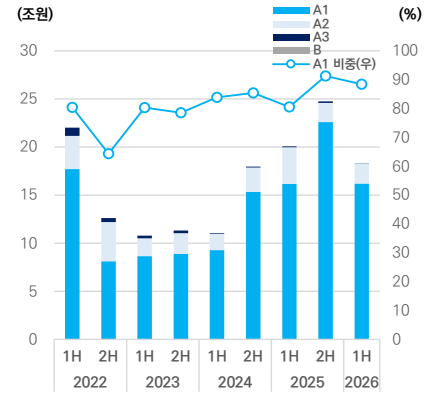
시공사 신용보강 구조
큰폭으로 감소
공공기관 신용보강 구조 큰폭
으로 증가

한편 2024년도 하반기부터 본 PF 전환이 일부 이루어지고, 기존 발행 건들의 차환발행이 주를 이루면서 시공사 신용보강 구조의 유동화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46.9% 감소한 4조원이 발행되었다. 미착공 사업장 브릿지론에 대한 시공사 우발채무가 지속되고 있어, 신규 사업 유동화 발행에 대한 부담이 발행규모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시공사 신용보강 구조
신용등급별 ABCP/ABSTB 발행실적



전체 PF Loan 유동화
신용등급별 ABCP/ABSTB 발행실적



주요 건설회사의 신용등급 변화

업체명		2023.12.31	2024.06.30	2024.12.30	2025.06.30	2026.06.30
DL	(장기)	AA-/S	AA-/S	AA-/S	AA-/S	AA-/S
현대건설	(장기)	AA-/S	AA-/S	AA-/S	AA-/S	AA-/S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舊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장기)	A/N	A/S	A/S	A/S	A/S
삼성물산		A1	A1	A1	A1	A1
DL이앤씨		A1	A1	A1	A1	A1
포스코이앤씨		A2+	A2+	A2+	A2+	A2+
한화		A2+	A2+	A2+	A2+	A2+
롯데건설		A2+	A2+	A2+	A2	A2
GS건설		A2+	A2	A2	A2	A2
대우건설		A2	A2	A2	A2	A2
호반건설		A2	A2	A2	A2	A2
SK에코플랜트		A2-	A2-	A2-	A2-	A2-

주1) 당사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 회사채 신용등급(DL, 현대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을 참조하였으며 당사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타사 신용등급(대우건설)을 참조하였음.

주2) 파란 음영은 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빨간 음영은 등급이 하향조정된 경우를 의미함.

한편, 기타 기관의 신용연계 구조 유동화증권이 6.8조원 발행되며 시공사 신용보강 구조의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을 넘어섰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자산 보증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발행액은 2024년 상반기에는 1조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2.9조원, 당기에는 4.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을 위한 보증규모와 보증범위 확대, 보증료 인하정책⁵이 시행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 11월에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 뿐 아니라 부동산개발 시행자에 대한 대출보증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법에 근거한 PF 유동화가 1월에 처음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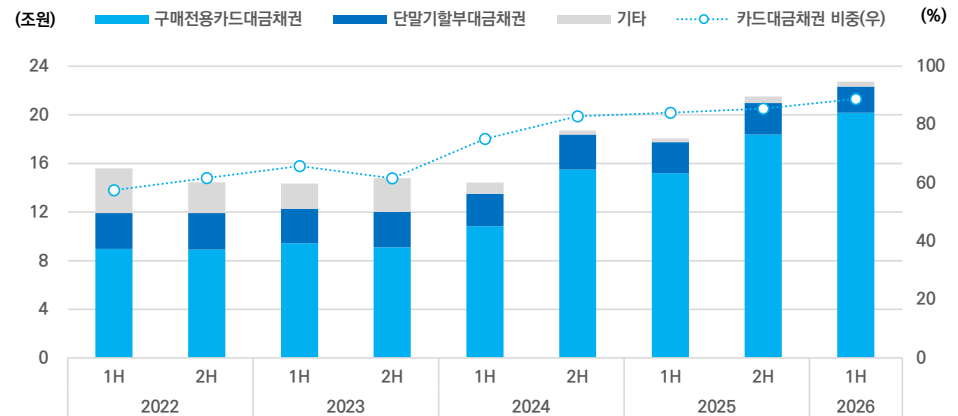
⁵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보증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까지 확대, 일반분양 PF 대출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 선투입요건을 토지비의 5% 또는 총사업비의 1%로 기존 대비 50% 완화, 시공사의 시공순위 700위 이내 요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6월에는 주택 관련 보증료 추가 인하와 함께 2026년 6월 30일 까지 있던 상기 특례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③ 매출채권 유동화: 22.7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 성장세 유지

법인회원에 대한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 발행실적이 20.2조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체 매출채권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액의 88.8%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15.2조원) 대비 32.7%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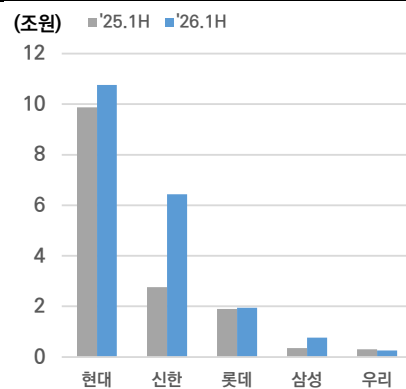
매출채권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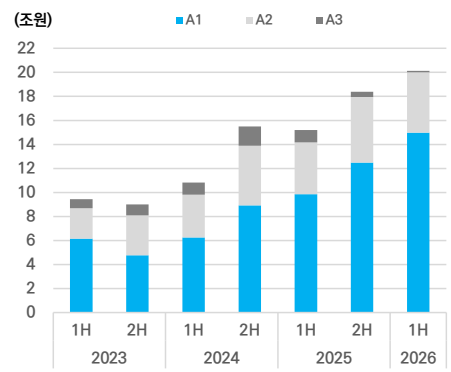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는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의 채권 Book-off 목적 및 법인회원들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5개 카드사가 해당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참여사는 현대카드(주), 신한카드(주), 롯데카드(주) 등이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신한카드(주) 관련 발행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법인회원 신용등급 기준으로 A1이 74.5%에 이르는 가운데, 2025년 상반기 훔플러스 사태 이후 A3급의 발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A1, A2급의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구매카드 유동화가 증가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주로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금리가 급등한 반면 단기금리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장기 자금조달보다 단기로 조달하거나 단기자금을 반복 차환할 유인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당좌수표 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하던 일부 기업이 당좌수표 유동화 발행을 축소하는 한편 구매전용카드대금 유동화 발행을 확대한 점도 더 해지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발행규모의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카드사별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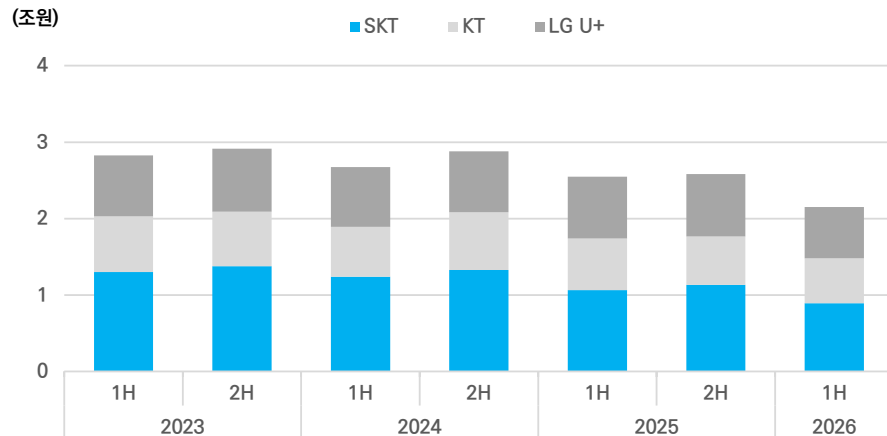


법인회원 등급별 발행실적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유동화
발행규모 감소**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유동화증권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2.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은 매출채권 유동화의 대표적인 기초자산 중 하나이나, 국내 단말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해당 유동화 시장 역시 성장이 정체되었다. 발행규모는 통신사 간 경쟁 강도나 신규 단말기 출시 성과 등 발행시점의 시장 요인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교체주기의 장기화와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주) 발행 비중이 4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주)KT 및 (주)LG 유플러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통신사별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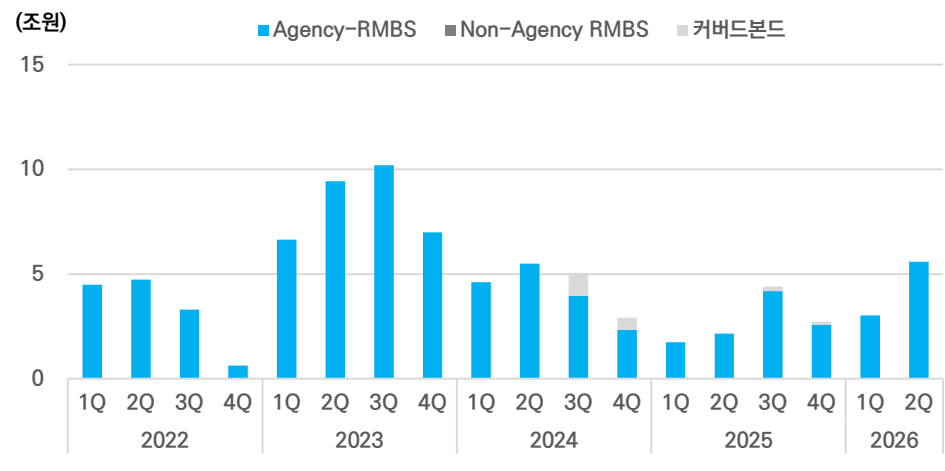
④ RMBS/커버드본드⁶: 8.6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121.5% 증가

RMBS 규모는 큰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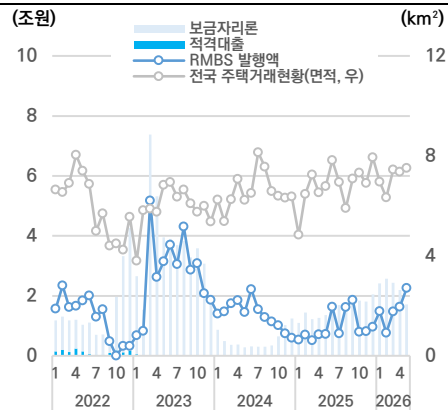
RMBS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산보유자로 참여한 Agency-RMBS만 발행되었으며, 전체 RMBS 발행실적은 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5% 상승하였다. 이는 2026년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의 자원 조달을 위한 발행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2021년 이후 발행이 위축되었던 커버드본드는, 2024년에 정책모기지 축소와 민간 장기모기지 확대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⁷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5년 하반기 0.36조원 발행을 끝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발행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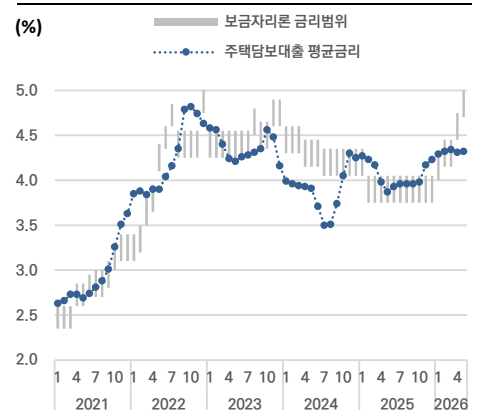
분기별 RMBS/커버드본드 발행실적



월별 보금자리론, RMBS 실적, 주택거래현황



월별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부동산원

한편, 국내 RMBS 시장은 발행자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도록 구조화된 Pay-through 방식⁷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Pass-through⁸ 방식의 RMBS는 202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 상반기 2.5조원의 발행을 기록하여 발행금액이 다시 증가하였다.

⁶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커버풀(기초자산집합)을 담보로 제공받는 채권으로 이중상환청구권, 우선 변제권, 파산절연성과 같은 특성을 보유한다.

⁷ 기초자산의 현금유입과 상관없이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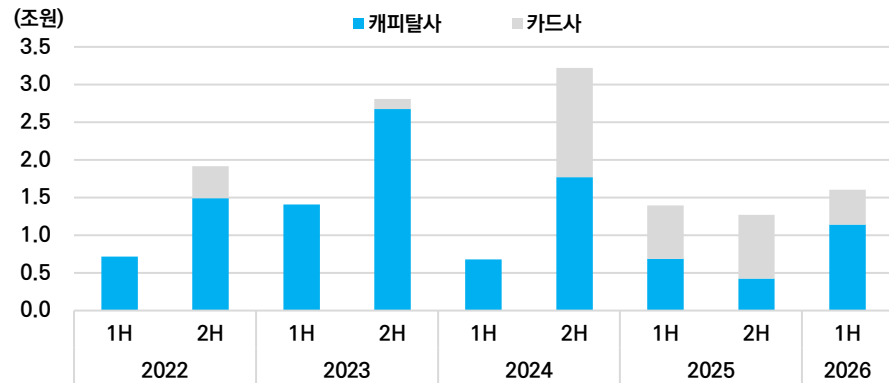
⁸ 주택담보대출 Pool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액을 그때 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방식

⑤ 오토론 유동화: 1.6조원 발행,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발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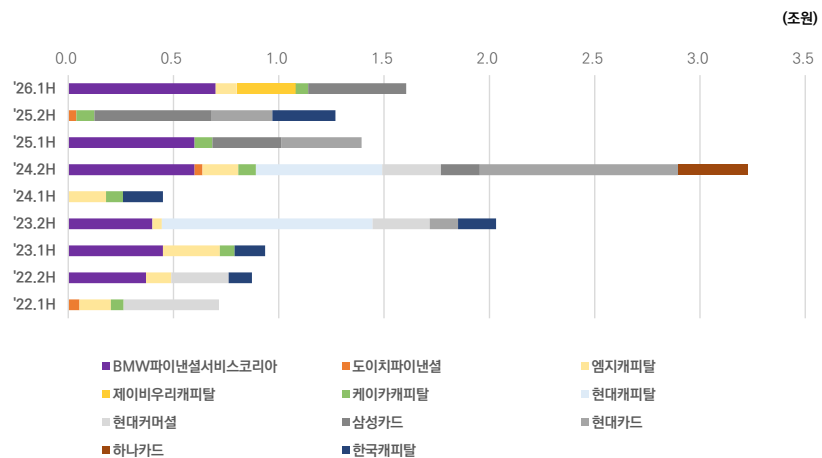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오토론 유동화 발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및 재무비율 개선을 위한 Book-off 목적 발행은 삼성카드(주)만 나서며 감소하였으나,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A급 캐피탈사들의 발행규모가 늘면서 전체 실적은 증가하였다.

반기별 오토론 유동화 발행실적



한편,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개의 캐피탈사⁹와 1개의 카드사¹⁰가 유동화에 참여하였다.

자산보유자별 오토론 유동화 발행실적



⁹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7,000억원, 엠지캐피탈(주)(舊 엠캐피탈(주)) 1,000억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2,801억원, (주)케이카캐피탈 600억원

¹⁰ 삼성카드(주) 4,653억원

3. 자산유동화증권 유형별 발행실적

ABS와
ABCP/ABSTB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

2026년 상반기 ABS(사모/공모, 수익증권/커버드본드 포함) 발행액은 18.2조원으로, RMBS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강 구조의 PF Loan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다. 한편, ABCP/ABSTB의 경우 매출채권 유동화의 발행 호조로 발행실적(118.0조원)은 3.5% 증가하였으나, 발행건수(1,277건)는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하였다.

유동화증권 유형별 발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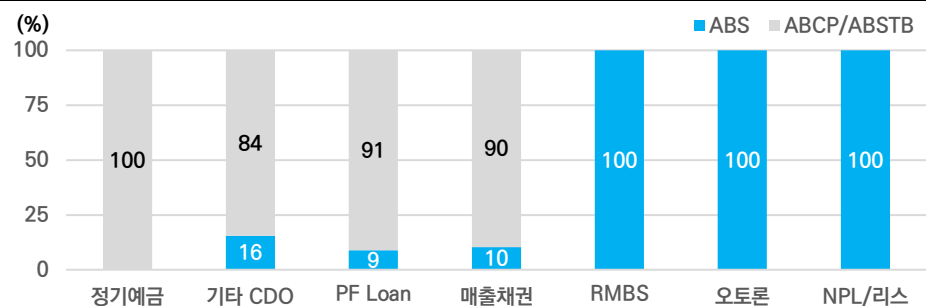
(단위: 억원, 건)

증권유형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발행금액	건수	발행금액	건수	발행금액	건수
ABS ^{주)}	194,918	90	159,454	80	182,082	94
ABCP/ABSTB	663,520	847	1,139,957	1,417	1,180,225	1,277
합계	858,438	937	1,299,411	1,497	1,362,307	1,371

주) ABS는 수익증권, 커버드본드 포함

유동화증권의 유형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다. Arbitrage 달인 정기에금 유동화 등 CDO는 대부분 ABCP/ABSTB의 형태로 발행되며, Pooling CBO를 중심으로 일부만이 ABS의 형태로 발행된다. RMBS, 오토론 및 NPL 등은 기초자산의 만기가 장기인 점이 반영되어 대부분 ABS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PF Loan 유동화증권은 단기성 자금조달 또는 증권사의 유동성/신용보강을 통한 차환발행구조가 많아 ABCP/ABSTB 형태로의 발행이 선호되고 있다. 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구매전용카드대출채권은 짧은 만기에 일시상환되어 ABCP/ABSTB 발행이 많지만, 단말기 할부대출채권 유동화 등은 긴 회수기간에 걸쳐 분할상환되는 자산이라는 점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의 이유로 ABS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초자산별 / 증권유형별 발행비중



주) 기타 CDO는 정기에금을 제외한 CDO를 의미함.

4. 자산유동화증권 등급별 발행실적

ABS 시장은
AAA 등급 위주

2026년 상반기 ABS 발행의 91.5%가 AAA 등급으로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에 건설사들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PF Loan 유동화를 중심으로 증가한 AA급 ABS 발행이 당기에는 위축되면서 AA등급의 발행이 감소하였다. 2024년 상반기에 건설사 신용보강 PF Loan 유동화로 A급 ABS 규모가 확대된 바 있으나, 건설사 신용보강 구조의 PF Loan 유동화 발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A급 ABS 발행액도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ABS 신용등급별 발행실적 (단위: 억원)

신용등급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발행금액	비율	발행금액	비율	발행금액	비율
AAA	174,744	89.7%	138,454	86.8%	166,556	91.5%
AA	1,962	1.0%	13,884	8.7%	8,098	4.4%
A	16,745	8.6%	2,967	1.9%	3,936	2.2%
BBB	667	0.3%	2,340	1.5%	2,182	1.2%
BB	0	0.0%	330	0.2%	245	0.1%
B	0	0.0%	0	0.0%	0	0.0%
CCC 이하	800	0.4%	1,479	0.9%	1,065	0.6%
합계	194,918	100.0%	159,454	100.0%	182,082	100.0%

ABCP/ABSTB 시장도
A1 등급 중심

A1등급으로 발행되는 정기에금 유동화로 인해 A1등급 발행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2026년 상반기에는 법인회원 신용등급 A1이상인 기업들 대상의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A1 등급 비중이 91.9%까지 확대되었다.

ABCP-ABSTB 신용등급별 발행실적 (단위: 억원)

신용등급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발행금액	비율	발행금액	비율	발행금액	비율
A1	578,103	87.1%	1,014,689	89.0%	1,084,499	91.9%
A2+	32,376	4.9%	38,607	3.4%	39,760	3.4%
A2	30,798	4.6%	53,007	4.6%	41,257	3.5%
A2-	9,079	1.4%	15,839	1.4%	9,001	0.8%
A3+	2,654	0.4%	4,217	0.4%	1,456	0.1%
A3	10,220	1.5%	12,194	1.1%	3,873	0.3%
A3-	30	0.0%	0	0.0%	0	0.0%
B+ 이하	260	0.0%	1,405	0.1%	379	0.0%
합계	663,520	100.0%	1,139,957	100.0%	1,180,225	100.0%

5. 2026년 하반기 전망

당반기까지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으나, 시장금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6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과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유동화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자산군별 발행규모는 정부의 정책 방향, 유동화 참여기관의 자금조달 수요 및 재무 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① CDO: 다소 부정적

정기예금 유동화 수요
다소 부정적

정기예금 유동화는 대출증가세 둔화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발행수요는 다소 부정적이다. 정기예금 유동화 규모는 Arbitrage 거래의 특성상 예금금리, 스왑포인트 등 시장 외생변수 방향성과 금융당국의 규제, 그리고 이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수요 등에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가 지속되는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대출 확대 가능성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편, 코스피의 급등락이 지속되며 증시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도체 호황에 따라 기업예금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예대율 관리 측면에서 2026년 하반기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는 상반기 대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출채권/사채/어음
규모 상반기 수준 유지 예상

대출채권/사채/어음 유동화의 경우 2026년 하반기 발행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대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유동화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적 금융 독려로 기업 Exposure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6월 발생한 중앙그룹의 Credit Event로 유동화증권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조달금리 상승도 발행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좌수표 유동화는 일부 특정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발행되어 왔으며, 이중 일부 회사가 올해 들어 당좌수표 대신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당좌수표 유동화 발행금액의 감소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CBO는
발행규모 유지 예상

2026년 하반기 P-CBO 발행규모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 발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CBO는 하반기에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업무 계획(안)을 통해 2025년과 동일한 규모의 신규 발행(당사 집계 기준 4.3조원)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상반기에 약 1.7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목표를 고려할 때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의 P-CBO는 발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P-CBO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유관기관의 정책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하반기 발행이 일정 수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PF Loan 유동화: 다소 부정적

PF Loan 유동화
감소 예상

2026년 하반기 PF Loan 유동화 발행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말부터 시작된 시장금리 상승, 최근 발표된 기준금리 인상과 미-이란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의 지속은 금융비용과 공사비를 동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6 가계부채 관리방안¹¹ 및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¹²,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대책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주거용 부동산 건설시장의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6년 7월 8일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¹³의 영향으로 현재 과반을 차지하는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의 유동화 발행이 위축될 경우, PF Loan 유동화시장의 감소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상승세는 PF 사업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유동화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이다. 2025년 9월에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2026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등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5만호 이상을 착공하는 점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련 당국의 공적보증 강화¹⁴로 당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공공기관 신용보강 구조의 유동화증권 발행은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매출채권 유동화: 다소 긍정적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의 발행 확대
및 단말기 유동화 정체가 지속 전망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기초 유동화증권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금조달 시 회사채 발행이나 장기 차입보다 단기 조달을 택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 구매전용카드대금채권 유동화가 일반기업의 대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당좌수표 유동화로 단기자금을 조달하던 일부 기업이 당좌수표 유동화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구매전용카드대금 유동화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발행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단말기 유동화는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유동화시장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다. 향후 관련 서비스의 안정화, 신규 스마트폰의 흥행 성과에 따라 발행규모가 가변적일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④ RMBS/커버드본드: 중립적

RMBS의 회복세는 제한적
커버드본드 발행은 불확실

RMBS의 발행규모는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보금자리론 공급규모가 유지될 경우 RMBS 발행규모도 증가할 수 있으나, 2026년 5월과 7월에 연속된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으로 관련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발행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

¹¹ 2026년 4월에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도의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을 1.7%에서 1.5%로 강화하였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¹² 2025년 10월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¹³ 2025년 11월에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업의 부동산 NCR 값을 기존에 투자형태에 따라 차등적용(채무보증 18%, 펀드 60%, 대출 100%)하던 방식에서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 본PF)와 LTV수준(60%초과)에 따라 최대 90%까지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부동산 채무보증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채무보증, 대출 등 모든 형태의 부동산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30%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¹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던 주택건설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모 연 100조원으로 확대(기존 연86조원), 일반 분양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 상향, 보증료 할인,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폐지 등의 특례 종료기한이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

커버드본드는 하반기 발행도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장금리 급등으로 일부 발행일정이 연기되면서 이전 대비 발행규모가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당반기에도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6년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발행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론 유동화: 중립적

오토론 유동화는 약보합세 전망

하반기 오토론 유동화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여전채 스프레드 확대는 ABS의 상대적 조달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거래에서는 Excess Spread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조달비용 상승분의 자산수익률 전가가 지연되는 점은 ABS 발행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캐피탈사들과 카드사들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의 단기성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있어, 유동화 수요 증가폭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 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